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한 접미사의 의미 예측성 연구

- 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를 중심으로

김한샘

(국립국어원)

<Abstract>

Kim Han-Saem. 2014. Research on Predictability of Korean Suffixes for Selecting Vocabulary of Korean Education, *Korean Semantics*, 43.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semantic predictability as criteria to classify affixes for applying the concept of word family to Korean vocabulary selection. The meaning of affixes as the object of prediction means a very complex aspect of lexical meaning and grammatical meaning of the terms of the transverse and longitudinal perspective. The demarcation of polysemy can vary depending on the scale of dictionary and aspect of editors. Meaning of affix pre-breaking technology, Macro, includes information on derivatives. The description of meaning of affix includes the information about base, affix, and derivative. The demarcation of polysemy is based on category and semantic field of base, lexical meaning and pragmatic meaning. Macro factors influencing the prediction can be the number of polysemy, polysemy distribution, and the relation between category of bases and the meaning of affixes. Semantic predictability of affixes will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affix classification through coordination with other elements such as frequency, productivity, regularity.

핵심어: 다의성(polysemy), 단어족(word family), 어기(base), 예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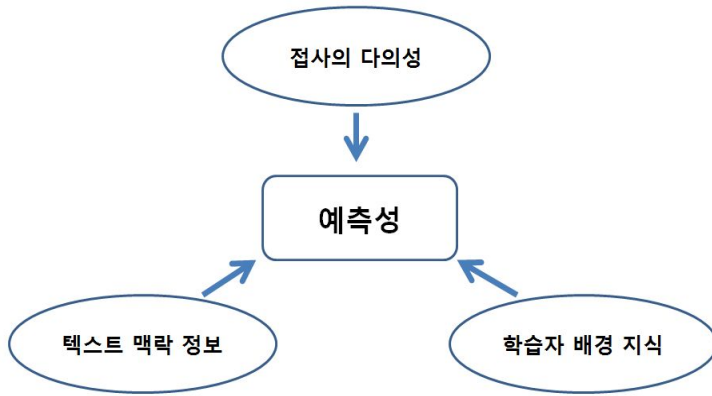
(predictability), 의미 분류(demarcation), 접사(affix), 파생어(derivative)

1. 머리말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교육용 어휘 선정 연구에서는 내국인용, 외국인용을 막론하고 어휘의 어형에 대한 단위를 무엇으로 설정하였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출현형, 어휘 유형, 사전 등재형, 단어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미진하였다. 김한샘(2011)에서는 Nation(2001)에서 제시한 ‘단어족’¹⁾을 단위로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는 것이 어휘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빈도 순위와 텍스트 점유율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검증하였다. 단어족을 기준으로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려면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접사를 분류하여 등급화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영어를 대상으로 접사의 등급별 분류를 시도한 Bauer & Nation(1993)에서는 빈도, 생산성, 예측성, 어기와 접사의 표기·발음·기능의 규칙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Bauer & Nation(1993)에서 ‘접사의 의미를 미리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한²⁾ ‘예측성’을 한국어 접사에 적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어기와 접사의 표기·발음·기능의 규칙성이 접사 내적인 특성에 기반한 기준이라면 빈도와 생산성은 접사의 실제 사용 양상에 기반한 기준이다. 그렇다면 ‘예측성’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접사의 의미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예측’은 헤아려 짐작하는 것이므로 ‘예측성’은 접사 자체의 의미적 특성뿐만 아니라 예측하는 주체인 학습자의 관점과 예측하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1) Nation(2001)에서는 단어족을 기본형에서 비롯된 파생 어형과 굴절 어형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

2) Bauer & Nation(1993)에서 빈도는 해당 접사를 포함하는 어휘가 텍스트에 출현하는 양을 나타내고, 생산성은 접사가 얼마나 활발히 파생어의 형성에 관여하느냐와 관련된 기준이며, 접사가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와 관련한 기준이 규칙성이다. Bauer & Nation(1993)의 접사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김한샘(2013-1)을 참조.



<그림 1> 접사의 예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접사의 의미가 예측하기에 얼마나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즉 접사가 어느 정도의 다의성을 가지는가가 예측성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접사의 의미를 예측하는 순간에는 학습자가 접사 자체의 다의성을 포함하여 접사와 결합하는 어기의 의미, 접사를 포함하는 파생어의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1>은 접사의 예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접사의 의미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해도 학습자가 이에 대한 지식을 이미 알고 있다면 예측하기 쉽고, 접사의 의미가 단순하고 쉽게 파악할 만한 것이라도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예측하기 힘든 것이다. 한편 학습자가 해당 접사, 접사와 결합한 어기, 접사를 포함하는 파생어에 대한 지식 중 일부만 습득한 상태라고 해도 접사가 출현한 텍스트의 앞뒤 문맥을 통해 관련된 의미 정보가 제공된다면 맥락 속에서 접사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예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학습자가 접사의 의미를 예측하는 과정을 상정하면 <표 1>과 같이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림 1>에서 제시한 세 가지 요소 중 ‘학습자의 배경 지식’은 개인 차가 있기 마련인데 ‘학습자’가 내국인 학습자이나 외국인 학습자이나에 따라 접사의 기본적 의미, 어기와

파생어의 의미에 대한 지식 정보의 양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학습자가 파생어, 어기, 접사의 의미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여덟 가지로 학습자의 배경 지식 유형을 나누었을 때 ①, ②, ⑦과 같이 접사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접사를 접하자마자 바로 기본적인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접사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접사를 포함하는 파생어가 의미론적 어휘화나 의미 표류를 겪은 경우, 일회적인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는 접사의 의미 예측이 최종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 이때 파생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문맥을 통해 접사의 의미 예측을 다시 시도하게 되는데 문맥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접사의 의미를 유추해 낼 수도 있지만 접사의 의미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한편 접사의 의미를 학습자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③이나 ⑥처럼 접사 이외 요소의 의미 정보를 통해 접사의 의미를 유추하게 된다. ④와 같이 어기와 접사 각각의 의미는 모르지만 이들로 형성된 파생어의 의미를 안다면 단어 형성 요소인 접사의 의미 예측을 시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파생어, 어기, 접사의 의미에 대해 전혀 모르는 ⑧의 상황에서는 접사를 분리하는 것부터 불가능하다. 텍스트 읽기를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③, ④에서 접사에 대한 지식을 추출하는 과정이 불필요할 수 있지만 내국인을 위한 국어 문법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병규(2012)에서 지적한 사고성, 도구성, 문화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문맥에서 주어진 문화적 정보와 결합의 대상인 어기나 결합의 결과인 파생어의 의미 정보에 기반해 접사의 의미를 예측하는 과정은 좋은 탐구 주제가 될 것이다. 한편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표 1> ⑤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는 텍스트 이독성(readability)에 있어 내국인 학습자보다 더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문맥 분석 능력과 문맥을 구성하는 어휘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표 1> 학습자의 접사 의미 예측 양상

학습자 배경 지식 (대상의 기본적 의미 인지 여부)				학습자의 접사 의미 예측 양상
	파생어	어기	접사	
①	O	O	O	접사의 의미 즉시 예측
②	O	X	O	
③	O	O	X	파생어의 의미에서 어기의 의미를 제한 것으로 접사의 의미 예측 가능
④	O	X	X	접사의 의미 예측 시도 가능성 회박
⑤	X	O	O	접사의 의미 즉시 예측(실패) → 파생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문맥 을 통해 접사의 의미 예측 재시도
⑥	X	O	X	파생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어기의 의미와 문맥을 통해 접사의 의미 예측 시 도
⑦	X	X	O	접사의 의미 즉시 예측 → 파생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접사 의 의미와 문맥을 통해 파생어 및 어기의 의미 유추
⑧	X	X	X	접사 분리 및 의미 예측 불가 문맥을 통해 파생어의 의미 파악 시도

그런데 <표 1>에서 ‘접사의 의미 예측’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한 과정은 실제로 매우 복잡한 의미 정보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외형적으로 형태가 같은 접사가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지, 실제 언어생활에서 접사가 다양한 의미 중에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는지, 접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단서가 되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따라 학습자가 접사의 의미를 예측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결과의 정확도가 달라진다. 학습자의 배경 지식이나 텍스트의 맥락 정보와 같은 요소는 가변적이어서 측정이 어려우므로 이 논문에서는 접사의 다의성을 중심으로 예측성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은 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로 한정하였다.

2. 접사의 다의성

2.1. 접사 다의어 분류 양상

품사 전성이라는 문법적 기능에 초점이 있거나 화용적 의미만을 더하는 접사는 단의어(monosemy)이지만 어휘적 의미를 보태는 접사는 다의어(polysemy)인 경우가 꽤 있다. 이정식(2003)에서 다의어의 양상에 대해 ‘의미 확장’, ‘의미 파생’, ‘의미 발생’ 등의 술어를 소개하였는데 이는 모두 하나의 의미가 분화되어 복수 개의 의미가 되는 통시적 변화를 전제로 한다. 공시적으로 하나의 어휘가 여러 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이런 변화의 결과인데 변화의 정도와 방향에 대한 인식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의어의 의미 분류(demarcation)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전이나 논문의 의미 기술을 살펴보면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이’를 다의어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지만 몇 개의 다의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몇 개의 동형어로 구분할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른 분석 방법을 취하고 있다. 가장 통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송철의(1992)로 ‘-이’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 형태가 동일하고 명사 파생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형태소로 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척도 명사를 파생시키는 ‘-이’는 통시적으로 ‘-의/인’에서 온 것이므로 이 ‘-이’에 의한 파생어를 통시적 발달형으로 봐야 한다고 하여 공시적으로 ‘-이’의 형태를 지니는 접미사를 하나의 형태소로 본다고 밝힌 것에 수정의 여지를 두었다. 이현희(2009)에서는 접미사 ‘-이’에 생성어휘부 이론을 적용하여 어휘 개념 구조(lexical conceptual paradigm)를 기술하면서 도구, 사람, 행위, 추상명사로 ‘-이’의 의미 기능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질병의 의미를 나타내는 ‘가슴앓이’의 경우 행위로 보기 힘들고 추상명사의 예로 든 길이, 높이 등의 척도 명사와 성격이 다르며, ‘먹이’, ‘짜짜이’와 같은 명사를 도구를 나타내는 명사로 볼 수 없어 어휘 개념 구조 설정에 보완이 필요하다. 사전에 나타난 ‘-이’의 다의 구조를 살펴보아도 의미 분류에 차이가 있다. 공시적으로 ‘-이’의 형태를 가지며 명사 파생의 기능을 수행하는 접미사로 범위를 한정하여 사전의 의미

분류를 보이면 (1)~(3)³⁾와 같다.

1. ㄱ) [용언의 어간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말. ㉠ 길이/높이/넓이/먹이/놀이.
 ㄴ) [명사의 뒤에 붙어] 그것이 뜻하는 특징을 지닌 사람임을 나타냄.
 ㉠ 절름발이/육손이.
 ㄴ-1) [일부 고유 명사의 뒤에 붙어] 어조를 고르는 구실을 함.
 ㉠ 북돌이/갑순이.
 ㄴ-2) [물건의 수효를 나타내는 수사 뒤에 붙어] 사람의 수효를 지시하는 뜻을 나타냄. ㉠ 돌이/셋이/여럿이.
2. a-1) ((몇몇 형용사, 동사 어간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 길이/높이/먹이/벌이.
 a-2) ((몇몇 명사와 동사 어간의 결합형 뒤에 붙어)) ‘사람’, ‘사물’, ‘일’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 때밀이/젓먹이/재떨이/옷걸이/목걸이/가슴앓이.
 a-3) ((몇몇 명사, 어근, 의성·의태어 뒤에 붙어)) ‘사람’ 또는 ‘사물’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 절름발이/애꾸눈이/멍청이/뚝뚝이/똥똥이/딸랑이.
 b) ((받침 있는 사람의 이름 뒤에 붙어))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
 ㉠ 갑순이/갑돌이.
 c) ((일부 수사 뒤에 붙어)) ‘그 수량의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 친구와 둘이 영화를 보러 갔다.
3. 1-1) 겉모양이나 속성을 더하는 일부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한 모양이나 속성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자음으로 끝나는 어근 뒤에만 붙는다.
 ㉠ 애꾸눈이/절름발이/육손이/곰배팔이/똥똥이/멍청이.
 1-2) 일부 타동사의 목적어 명사와 용언 어간의 결합형 뒤에 붙어,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자음으로 끝나는 어근 뒤에만 붙는다. ㉠ 젓먹이/총잡이/구두닦이/신문팔이/넙마주이.
 1-3) 겉모양이나 속성을 더하는 일부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한 모양이나

3) (1) 연세한국어사전(1998). 『연세』로 약칭.

(2) 표준국어대사전(1999/2008). 『표준』으로 약칭.

(3)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고려』로 약칭.

속성을 지닌 동물'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자음으로 끝나는 어근 뒤에만 붙는다. ㉠ 바둑이/얼룩이.

1-4) 동물의 소리나 움직임을 더하는 일부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한 소리를 내거나 움직임을 보이는 동물'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자음으로 끝나는 어근 뒤에만 붙는다. ㉡ 꿀꿀이/야옹이/거북이/맹꽁이.

1-5) 주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타동사 '살다'의 어간의 결합형 뒤에 붙어, '그러한 동물' 또는 '그러한 식물'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 하루살이/겨우살이 /한해살이/두해살이.

2-1) 일부 타동사 어간 뒤에 붙어, '그렇게 하는 일'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 벌이/풀이/고기잡이/봄맞이/꽃꽂이/가슴앓이.

2-2) 일부 타동사 어간 뒤에 붙어, '그 일을 하는 대상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 먹이/구이/귀걸이/목걸이/손잡이.

2-3) 일부 타동사 어간 뒤에 붙어, '그 일을 하는 도구'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 더듬이/재떨이/바람막이.

3-1)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 이름 뒤에 붙어, 그 사람을 자신과 동년배나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뜻을 더하는 말. 흔히 친근한 사이에 쓴다.

㉦ 영순이/성철이/영진이/최강철이/배영환이.

3-2) 일부 수사에 붙어, '그만큼의 사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주로 열 이하의 적은 수에 결합한다.

㉧ 셋이/여섯이/우리 둘이는 서로 사랑한다.

3-3) 일부 한자어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한 속성을 가진 동물'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 송충이/호랑이.

4) 일부 상태성 형용사의 어간 뒤에 붙어, 그 상태의 척도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 깊이/높이/길이/넓이.

표제어의 수로 가늠할 수 있는 사전의 규모와 발간 시기를 고려하면 세 가지 사전을 동일전상에서 놓기 힘들지만 논의의 주제인 다의어 접미사의 의미 분류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많은 다의어를 제시한 『고려』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명사 파생 접미사 ‘-이’의 사전별 의미 분류

고려	표준	연세	비고
1-1	a-3	ㄴ	
1-2	a-2	X	
1-3	X	X	동물
1-4	X	X	동물
1-5	X	X	동식물
2-1	a-1(일부)	ㄱ(일부)	
2-2	a-1(일부)	ㄱ(일부)	
2-3	a-2	ㄱ(일부)	
3-1	b	ㄷ-1	
3-2	c	ㄷ-2	
3-3	X	X	동물
4	a-1(일부)	ㄱ(일부)	

명사 파생 접미사 ‘-이’를 『고려』는 다의어 12항목을 포함하는 동형어 4항목으로, 『표준』은 다의어 5항목으로 구성된 동형어 3항목으로, 『연세』는 다의어 4항목을 3항목의 동형어로 구분하였다. 『고려』와 나머지 두 사전의 다의어 수는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표 2>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에서는 기존의 사전에서 기술하지 않았던 접미사 ‘-이’가 붙어서 동식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전의 명사 파생 접미사 ‘-이’에 대한 기술 범위를 넓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전 내적 일관성을 놓친 경우가 발견된다. 우선 (3-1-3)에서 예로 든 ‘얼룩이’는 『표준』에서는 ‘얼룩기4)’의 잘못으로 기술되어 있다. 홍종산·김양진(2009)에서 밝힌 대로 『고려』가 어문 규정 준수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용례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3-3-3)의 ‘송충이’와 ‘호랑이’는 ‘-이’와 결합하는 어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3-3-3)에 의하면 이 다의어의 어기는 동물의 속성을 드러내는 한자어여야 하는데 『고려』에

4) 한글 맞춤법 23항의 붙임 조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를 따른 표기.

서 ‘송충’은 ‘송충이’와 유의어인 명사로 기술하고 있다. ‘호랑’은 『고려』에 어근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범과 이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의 의미인 명사로만 기술되어 있다. ‘송충’과 ‘호랑’이 동물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냐도 문제가 된다. (3-3-3)에서 기술한 ‘-이’ 다의어의 기술을 의미와 어기의 문법적 제약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창섭(199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파생 접사를 기술 할 때에는 정밀하고 정확한 정의와 함께 망라적인 예어를 제시해야 한다. 『고려』는 ‘-이’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표준』이나 『연세』에서 동형어로 기술한 것이 다의어로 기술되기도 하였다. 동사 어간 뒤에 붙는 ‘-이’를 『표준』과 『연세』에서 동형어로 처리한 반면 『고려』에서는 ‘벌이’를 파생하는 ‘-이’와 같이 ‘그렇게 하는 일’의 의미를 더하는 경우와 ‘먹이’와 같이 ‘그 일을 하는 대상’의 의미를 더하는 경우로 세분하였다. <표 2>의 음영 처리한 부분처럼 동형어의 범위를 벗어나 불일치를 보이기도 하는데 『표준』에서 받침 있는 사람의 이름 뒤에 붙어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예: 갑순이)와 일부 수사 뒤에 붙어 ‘그 수량의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예: 둘이)를 동형어로 기술한 반면 『고려』와 『연세』는 다의어로 묶어서 처리하였다. ‘-이’의 다의어 중 품사 전성의 문법적 기능이 가장 강한 ‘길이’, ‘높이’, ‘먹이’, ‘벌이’ 등을 파생하는 ‘-이’를 『표준』과 『연세』에서는 어기의 품사와 관련 없이 하나의 다의어로 기술한 반면 『고려』에서는 ‘일부 상태성 형용사의 어간 뒤에 붙어, 그 상태의 척도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이라 하여 ‘길이’, ‘높이’를 파생하는 ‘-이’를 별도의 동형어로 처리하였다. 이는 송철의 (1992)에서 언급한 통시적 변화를 공시적인 사전 기술에도 반영한 것이다.

2.2. 접사 다의어 분류의 기준

앞 절에서 명사 파생 접미사 ‘-이’를 예로 들어 공시적으로 접사의 다의성을 기술하는 것이 쉽지 않고 관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접사의 다의어를 구분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요소를 『표준』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준』에서 방언, 옛말, 북한어, 오류 형태 등을 제외하고 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를 추출하니 총 60항목이었고 이중

30%에 해당하는 18항목이 다의어로 기술되어 있다. 『표준』에 실린 어휘 항목 전체에서 다의어로 기술된 것이 약 11%⁵⁾인 것을 감안하면 접사의 다의어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다의어로 기술된 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 중 세부 의미 항목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질’로 (4)과 같이 6개의 세부 의미 항목으로 기술되었다.

4. ㄱ. ((도구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가위질/겉레질/망치질/부채질.
- ㄴ.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결눈질/손가락질/입질/주먹질.
- ㄷ. ((일부 명사 뒤에 붙어))직업이나 직책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선생질/순사질/목수질/회장질.
- ㄹ. ((일부 명사 뒤에 붙어))주로 좋지 않은 행위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게집질/노름질/서방질/싸움질/자랑질.
- ㅁ. ((물질을 나타내는 몇몇 명사 뒤에 붙어))‘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 또는 ‘그것과 관계된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물질/불질/풀질/흙질.
- ㅂ. ((몇몇 의성어 또는 어근 뒤에 붙어))‘그런 소리를 내는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딸꾹질/뚝딱질/수군덕질.

(4ㄱ)과 (4ㄴ)은 어기의 의미 부류에 따라 접사의 의미를 구분한 것이다. (4ㄱ)과 (4ㄴ)의 의미는 ‘~을 이용해 하는 행위’로 통합할 수 있다. 단지 어기의 자리에 오는 이용하는 대상이 도구인지 신체 부위인지에 따라 의미를 구분한 것이다. ‘~을 이용해 하는 행위’는 (4ㄱ)의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과 같은 맥락이다. (4ㄱ) 역시 이용하는 대상이 물질이라는 어기의 의미 부류에 따라 의미를 구분했다고 볼 수 있다. (4ㄷ)과 (4ㄹ)은 ‘낮춤’이라는 화용적 의미를 더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앞에 오는 어기가 직업이나 직책을 나타내는 의미 부류인지의 여부에 따라 접사의 의미를 구분하였다. 엄밀하게 말하면 (4ㄷ)은 직업이나 직책 자체를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는 행위’를 비하하는 것이다. (4ㄹ)의 의미 기술에

5) 이운영(2002)에 의하면 표준국어대사전 초판의 어휘 항목수 총계는 509,076이며 이중 다의어는 55,148항목이다.

서 ‘좋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 ‘주로 좋지 않은 행위’라고 표현한 것은 ‘계집’, ‘서방’은 행위가 아니고 좋다 나쁘다를 가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4ㄷ)과 (4ㄹ)의 의미 기술은 (4ㄱ), (4ㄴ)과의 일관성을 고려한다면 (5)나 (6)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ㄱ. ((직업이나 직책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는 행위’를 낮추어 이르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 ㄴ. ((주로 좋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행위’ 또는 ‘그 것과 관계된 행위’를 낮추어 이르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6. ㄱ. ((직업이나 직책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는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흔히 그런 행위를 낮잡아 이를 때 쓴다.
- ㄴ. ((주로 좋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행위’ 또는 ‘그 것과 관계된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흔히 그런 행위를 낮잡아 이를 때 쓴다.

(4ㄴ)은 (4ㄱ)~(4ㄹ)과 결합하는 어기의 범주가 달라서 의미를 구분한 경우이다. (4ㄱ)~(4ㄹ)은 ‘-질’의 다의어 기술을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어기의 범주, 어기의 의미 부류, 접사의 화용적 의미를 접사의 의미 분류 기준으로 추출해 내었다. 같은 방식으로 『표준』에서 다의어로 기술한 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 18항목의 의미 분류 기준을 추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음 <표 3>이다.

<표 3> 『표준』의 다의어 명사 파생 접미사 의미 분류 기준

접미사	의미 분류 기준
-내기	o 어기의 범주 o 접사의 화용적 의미
-네	o 어기의 의미 부류 o 접사의 어휘적 의미
-박이	o 어기의 범주 o 접사의 어휘적 의미
-발	o 접사의 어휘적 의미
-불이	o 어기의 의미 부류
-잡이	o 접사의 어휘적 의미

-지기	o 어기의 범주 o 어기의 의미 부류 o 접사의 어휘적 의미
-집1	o 어기의 의미 부류 o 접사의 어휘적 의미
-집2	o 접사의 어휘적 의미
-짜리	o 어기의 범주 o 어기의 의미 부류 o 접사의 어휘적 의미
-치레	o 접사의 어휘적 의미
-통이	o 어기의 의미 부류 o 접사의 어휘적 의미
-님	o 어기의 의미 부류
-배기	o 어기의 범주 o 접사의 어휘적 의미
-보	o 어기의 범주
-이	o 어기의 범주
-꾼	o 접사의 어휘적 의미 o 접사의 화용적 의미
-질	o 어기의 범주 o 어기의 의미 부류 o 접사의 화용적 의미

김창섭(1992)에서는 파생 접사의 정의가 “①어떠어떠한 어기에 붙어, ②어떠어떠한 의미를 더해, ③어떠어떠한 문법 범주의 파생어를 만드는 말”과 같은 틀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였다. <표 3>과 같이 다의어인 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의 의미 분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세부 의미 항목을 구분하는 기준은 위의 ①에 해당하는 어기의 범주와 의미 부류, ②를 나타내는 접사의 어휘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에서는 다른 범주를 파생하는 경우 형태가 같더라도 다의어가 아니라 동형어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③은 다의어의 의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⁶⁾ 파생 접사의 정의 중 핵심적인 요소인 접사의 어휘적 의미를 기준으로 다의어를 구분한 접미사가 12항목으로 가장 많았는데 접사의 의미와 상관없이 결합하는 어기의 특성만으로 접사의 의미를 분류한 경우 어휘적 의미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재분류할

6) “국어대사전(이희승, 1982)”에서는 ‘많이’, ‘적이’ 등을 파생하는 부사 파생 접미사 ‘-이’도 동형어로 분리하지 않고 명사 파생 접미사와 함께 다의어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여지가 있다. (7)과 같이 기술된 ‘-보’의 의미를 (8)과 같이 기술하는 것이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쉽다.

7. ㄱ. ((몇몇 명사 뒤에 붙어))‘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꺾보/싸움보/잠보/털보.
- ㄴ. ((몇몇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그러한 행위를 특성으로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 먹보/울보/썰보.
- ㄷ. ((몇몇 어근 뒤에 붙어))‘그러한 특징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땅딸보/똥똥보.
8. ((몇몇 명사, 어근, 동사·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그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꺾보/털보/땅딸보/똥똥보/먹보/울보.

3. 접사의 의미 예측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사의 의미는 관여하는 요소가 다양하여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접사의 의미 예측성을 측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인 개별 접사의 다의성을 살펴본 결과 사전마다 분류의 기준이 달랐고 개별 접사의 분류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이에 2장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표준』의 다의어 분류를 다의어와 동형어의 구분, 의미 분류 기준 등의 관점에서 재조정하여 Bauer & Nation(1993)에서 접사의 의미 예측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한 다의어 수, 다의어의 사용 분포, 어기 범주와 접사 의미의 관계 등 의미 예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국어에 적용해 보았다.

3.1. 다의어의 수

다의어의 수와 접사의 의미 예측성은 반비례 관계이다. 다의어의 수가 적을수록 접사의 의미를 예측하기 쉽다. 그런데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사의 다의어 기술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사전, 논문 등 접사

의 의미 분류를 시도한 결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도 개별 접사의 세부 의미 항목을 구분하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한편, 학습자의 시각에서 보면 다의어와 동형어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접사의 예측성을 가늠하기 위한 ‘다의어 수’는 동일한 형태를 지니는 동형 접사의 다의어 수의 합으로 적용해야 한다. <표 4의> ‘조정 후 다의어 수’는 『표준』의 접미사 의미 분류를 어휘적 의미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동형 접사의 다의어 수를 더하여 다시 산출한 다의어 수이다. 동형 접사가 존재하는 경우 동형어 각각의 다의어 수를 더하는 과정을 보였다. ‘-꾼’이나 ‘-질’과 같은 접미사는 어휘적 의미의 관점에서 보자면 각각의 다의어가 [+사람], [+행위]의 의미 자질을 공유하므로 다의어 수를 사전의 세부 의미 항목 수로 하지 않고 통합하여 하나로 조정하였다. ‘-보’ 역시 (7)이 아니라 (8)을 적용해 동형 접사의 다의어 수와 합하여 다의어 수를 2로 설정하였다. ‘서울내기’의 ‘-내기’와 ‘신촌내기’의 ‘-내기’는 어휘적 의미를 ‘그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통합할 수 있으므로 다의어 수가 1이 되었다. ‘-님’의 다의어는 어기의 의미 부류만 다를 뿐 ‘높임’의 화용적 의미를 공유하므로 통합이 가능하다. ‘-내기’, ‘-님’, ‘-꾼’, ‘-질’ 등의 접미사는 조정을 거치면서 다의어 수가 줄어들었다.

‘-집’은 의미의 유연성이 전혀 없는 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가 두 항목 존재하는데 각각이 어휘적 의미로 구분이 되는 세부 의미 항목을 2항목씩 포함하고 있으며 ‘모아 엮은 책’의 뜻을 더하는 단의어 한자어 접미사 ‘-집(集)’이 존재하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다의어 수를 5로 하였다. 이렇게 사전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은 학습자의 의미 예측이라는 관점에서 다의어 수를 조정하고 나니 가장 많은 다의어를 가지는 접미사는 ‘-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에서 다의어인 접미사 ‘-이’는 (2a)로 기술되어 있으나 의미 예측의 관점에서 어휘적 의미를 기준으로 재구성하면 척도, 사람, 사물, 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의어 세부 항목의 수가 3에서 4로 오히려 늘어났다.

<표 4> 명사 파생 접미사의 다의어 수

접미사	동형어 내 다의어 수	동형 접사 수	조정 후 다의어 수
-내기	2		1
-네	2		2
-박이	2		2
-발	2		2
-불이	2		2
-잡이	2		2
-지기	2	1	2+1=3
-집1	-집	2	2+2+1=5
-집2		2	
-짜리	2		2
-치레	2		2
-통이	2		2
-님	3		1
-배기	3		3
-보	3	1	1+1=2
-이	3	2	4+1+1=6
-꾼	5		1
-절	6		1

3.2. 다의어의 사용 분포

이론적으로 기술한 다의어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실제로 이중 일부의 의미로만 많이 사용한다면 접사의 의미 예측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전에 다의어로 기술된 접사가 세부 의미 항목별로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말뭉치⁷⁾에서의 <표 4>에서 조정 후 다의어 수가 2 이상인 접미사를 대상으로 의미 빈도를 추출하여 <표 5>에 보였다.⁸⁾

7) 초등학교 교과서 말뭉치: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전 학년의 13과목 18종 교과서 127권 전체 어휘를 분석해 빈도를 낸 결과로 77만 어절 규모임.

<표 5> 다의어 명사 파생 접미사의 의미 빈도

접미사	다의어 수	세부 의미	의미 빈도/비율
-네	2	같은 처지의 사람 『아낙네.』	5/0.5%
		그 사람이 속한 무리 『아저씨네.』	1026/99.5%
-불이	2	같은 거래 『일가불이.』	0/0%
		어떤 물건에 딸린 같은 종류 『쇠불이.』	7/100%
-짜리	2	그만한 수량·가치를 가진 것 『백 원짜리.』	254/100%
		그런 차림을 한 사람 『양복짜리.』	0/0%
-치레	2	치러 내는 일 『병치레.』	0/0%
		겉으로만 꾸미는 일 『겉치레.』	2/100%
-보	2	그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 『털보.』	3/42.9%
		그것이 쌓여 모인 것 『웃음보.』	4/57.1%
-지기	3	논밭의 넓이 『밭 말지기.』	0/0%
		논 『천동지기.』	0/0%
		그것을 지키는 사람 『문지기.』	24/100%
-이	6	척도 『길이.』	1664/43.7%
		일 『벌이.』	1594/41.9%
		사물 『딸랑이.』	140/3.7%
		사람 『젓먹이.』	230/6%
		어조를 고름 『갑순이.』	149/3.9%
		그 수량의 사람 『둘이.』	28/0.7%

접미사 ‘-네’는 두 가지 의미 중 ‘그 사람이 속한 무리’의 의미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철수네’, ‘아저씨네’ 등을 파생하는 ‘-네’가 ‘아낙네’, ‘동갑네’, ‘여인네’를 파생하는 ‘-네’보다 많이 쓰이는 이유는 어기의 범주와 레지스터에서 찾을 수 있다. ‘무리’를 나타내는 ‘-네’는 어기로 사람을 지칭하는 대다수 명사에 붙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사람’이라는 넓은 의미 부류를 취하므로 어기의 집합이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네’와 결합하는 어기

8) 어휘의 ‘의미 빈도’에 대한 이론과 실례는 서상규(2014)를 참조.

는 의미적인 개방성과 더불어 통사적인 개방성을 가진다. 어근이나 명사뿐만 아니라 ‘김 서방네’, ‘우리 언니네’, ‘저번에 만난 아저씨네’ 등의 명사구가 어기의 자리에 올 수 있다.⁹⁾ 한편 ‘같은 처지의 사람’을 나타내는 ‘-네’를 포함하는 파생어는 주로 과거에 문어체에서 쓰이던 것이 대부분이다. ‘-네’의 다의어별 의미 빈도 분포가 ‘무리’를 나타내는 ‘-네’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접사와 어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연하다.

‘일가불이’ 등을 파생하는 ‘-불이’, ‘양복짜리’ 등을 만드는 ‘-짜리’, 논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지기’는 초등학교 교과서 말뭉치에서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들은 과거의 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혈연관계를 중시 하던 때에는 ‘살불이’, ‘피불이’, ‘일가불이’ 등 그 연대감을 드러내는 어휘가 활발하게 쓰이며 유의어군을 형성하였으나 현재는 주로 ‘가족’, ‘친척’ 등의 어휘를 사용한다. ‘-짜리’가 과거의 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짜리’ 앞에 오는 어기를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그런 차림을 한 사람’의 뜻을 더하는 ‘-짜리’ 앞에 오는 어기를 『표준』에서 추출하니 ‘너울’, ‘도포’, ‘양복’, ‘장옷’, ‘증치막’, ‘창옷’, ‘창의’, ‘탕창’과 같이 과거의 복식을 나타내는 어휘였다. ‘양복’은 현재도 많이 쓰이는 어휘지만 ‘-짜리’와 결합할 때 양복은 ‘남성 정장’이라는 현대적 의미가 아니라 ‘한복’에 대비되는 ‘서양식 의복’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짜리’를 포함하는 파생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별짜리’, ‘천자짜리’ 등 사람의 특성과 관련된 의미를 더하는 ‘-짜리’의 다의어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수량이나 가치의 뜻을 더하는 ‘-짜리’는 ‘무리’를 나타내는 ‘-네’와 유사하게 결합하는 어기의 통사의미적 제약이 느슨하여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농경 문화가 일상생활에 밀착되어 있던 시대에 비해 ‘-지기’와 같이 논밭과 관련한 어휘가 덜 쓰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더불어 농업 분야에서 ‘천둥지기’ 등의 고유어보다는 ‘천수답’ 등의 한자어를 전문용어로 사용한다는 것도 ‘-지기’의 빈도가 낮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네’, ‘-불이’, ‘-지기’, ‘-짜리’ 등과 같이 실제 사용 양상이 특정 의미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접미사에 비해 ‘-보’와 같이 세부 의미 항목별 의미 빈도

9) 『표준』에서 기술한 문법 제약도 ‘사람을 지칭하는 대다수 명사 뒤에 불어’에서 ‘사람을 지칭하는 대다수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불어’로 수정해야 한다.

가 비슷한 접미사의 의미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표 5>에서 ‘-이’는 다의어의 의미가 다양하고 대부분의 의미가 활발하게 쓰일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의미를 예측하기가 가장 힘든 접미사이다. 김한샘(2013⁴)의 생산성 측정 결과 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 중 ‘-이’의 생산성이 가장 높았는데 의미 예측성은 반대로 가장 낮다. 의미 빈도가 비슷하다고 해도 어기와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파생어 종수가 많으면 예측성이 떨어진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파생어의 종수가 많을수록 접사가 특정한 의미를 나타낼 때 결합하는 어기에 대한 정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표 5>를 보면 접미사 ‘-이’가 척도를 나타낼 때와 일을 나타낼 때 의미 빈도율은 각각 43.7%와 41.9%로 비슷하지만 파생어는 각각 9항목과 66항목으로 일을 나타낼 때가 훨씬 다양한 파생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접사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접사를 포함하는 단어를 접했을 때 접사의 의미를 예측할 가능성은 척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 훨씬 높다.

3.3. 어기 범주와 접사 의미의 관계

Bauer & Nation(1993)에서는 어떤 경우에 어기의 범주가 알려져 있으면 접사의 의미가 예측 가능하다고 하며 ‘-s’를 예로 들었다. 어기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알게 되면 ‘-s’의 의미도 함께 알게 된다는 것이다. Bauer & Nation(1993)의 접사 분류는 영어를 대상으로 하므로 명사나 동사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굴절 접사를 포함하는데 명사의 복수형을 나타내는 접사와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을 나타내는 접사가 ‘-s’로 형태가 동일하다면 어기의 범주를 아는 것이 곧 접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다. 콜린스 코빌드의 “고급 학습자를 위한 영어 사전”에 ‘-s’의 두 가지 문법적 의미는 (9)과 같이 다의어로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어기의 범주로 접사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어기의 범주와 접사의 문법적 의미가 각각 일대일로 대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학습자가 ‘-s’라는 형태소가 두 가지 문법적 기능을 할 수 있어 중의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9. 1) -s or -es is added to a noun to form a plural.
- 2) -s or -es is added to a verb to form the third person singular, present tense.

한국어에도 어기의 범주에 따라 다의어를 분류할 수 있는 접미사들이 있다. <표 3>의 ‘-내기’, ‘-박이’, ‘-지기’, ‘-짜리’, ‘-보’, ‘-이’, ‘-질’ 등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어기 범주에 대한 인지가 접사의 의미 예측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중 ‘-내기’, ‘-보’, ‘-질’은 3.1.에서 이미 다의어가 결합하는 어기 범주가 달라도 어휘적 의미가 같기 때문에 다의어 분류 자체에 대해 재검토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이’는 『표준』에 (10)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0ㄱ)와 (10ㄴ)의 다의어가 취하는 어기가 각각 ‘명사’와 ‘명사 또는 동사 어간’으로 범주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명사’의 범주가 겹치고 접사가 무엇이 박혀 있다는 어휘적 의미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기의 범주로는 접사의 의미를 변별할 수 없다. 접사가 더하는 의미의 유개념이 (10ㄱ)은 ‘사람이나 짐승 또는 물건’이고 (10ㄴ)은 ‘장소나 상태’로 겹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10ㄴ)에서 예로 든 ‘불박이’가 상태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사람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결국 접사의 다의어 간에 어휘적 의미도 겹치는 셈이다. 3.1에서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다의어와 동형어의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의미 예측성을 논의할 때는 동형어도 다의어와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11)의 ‘-지기’는 동형어 관계인 (11ㄱ)과 (11ㄴ)의 어기 범주 제약이 같기 때문에 어기 범주에 의해 접사의 의미를 구분할 수 없다. 다의어인 (11ㄱ)과 (11ㄴ)으로 범위를 좁혀 살펴보면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접사에 직접 결합하는 어기의 범주를 세부적으로 변별할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나 (11ㄱ)의 용례에 나오는 의존 명사 ‘말’과 ‘섬’이 자립 명사로도 쓰이고 학습자가 같은 명사 부류 안의 세부 분류를 인지하여 접사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지기’는 의미 예측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이’의 다의어 구분에 대해서는 2.2.1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었는데, 다의어의 어기 범주가 상보적 분포를 이루기는 하지만 접사의 어휘적 의미가 겹치기 때문에 어기의 범주만으로는 접사의 의미

를 변별할 수 없다.

10. 가. ((일부 명사 뒤에 붙어))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물건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접박이/금니박이/덧니박이/네눈박이/차돌박이.
 나. ((일부 명사 또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무엇이 박혀 있는 곳이라는 뜻을 더하거나 또는 한곳에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장승박이/불박이.
11. 가. ((곡식의 양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어))‘그 정도 양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논밭의 넓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닛 말지기/두어 십지기.
 나. ((몇몇 명사 뒤에 붙어))‘논01’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천둥지기.
 다. ((몇몇 명사 뒤에 붙어))‘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문지기/산지기/청지기.

이 논문의 대상으로 삼은 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의 범위 내에서는 영어의 ‘-s’와 같이 어기의 범주만 알아도 다의어 접사의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접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4. 의미 예측성에 기반한 접사의 분류

3.1.에서 3.3.을 통해 접사의 의미 예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한국어에도 적용이 가능한 다의어의 수와 사용 분포를 기준으로 『표준』에 등재된 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 58항목¹⁰⁾을 다의어 수에 기반한 의미 예측성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접사 분류 기준 중 빈도, 생산성 등은 개별 접사마다 수치가 변별이 되지만 의미 예측성은 단계별 접사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1단계의 ‘-개’, ‘-결’ 등은 의미가 단일하여 가

10) 원래 『표준』에 등재된 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는 60항목인데 현재 쓰이지 않는 ‘육가마리’, ‘놀림가마리’ 등의 ‘-가마리’, ‘말가웃’, ‘되가웃’의 ‘-가웃’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논문의 다의어 분포 조사 대상인 초등학교 교과서 말뭉치에서도 ‘-가마리’, ‘-가웃’의 빈도는 0이었다.

장 의미를 예측하기 쉬운 접사들이다. 둘 이상의 다의어를 포함하는 경우 2 단계, 3단계처럼 사용 비율의 차이가 큰 접사의 의미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하며 다의어 수는 적을수록 단계가 높다. ‘-기’, ‘-배기’, ‘-이’, ‘-집’처럼 사용 비율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으면서 다의어의 수도 많은 접사의 의미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2, 3단계와 4, 5단계로 크게 나뉘는 기준은 사용 비율인데 ‘사용 비율의 차이가 큼’으로 기술한 것은 각주 7의 말뭉치에서 둘 이상의 다의어 중 하나의 쓰임만 발견된 것이다. ‘-짜리’는 그만한 수나 양을 가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런 차림을 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 중 전자의 쓰임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의미 예측성에 기반한 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 분류

의미 예측성	다의어 수	사용 분포	접미사 목록
1	단의어		-개, -결, -깎, -께, -꼴, -꾸러기, -꾼, -끼리, -내기, -님, -둥이, -들, -들이, -뜨기, -ㅁ, -막, -맞이, -머리, -박이, -발, -뱅이, -분, -빨, -살이, -새, -씩, -어치, -음, -장이, -쟁이, -질, - 짹, -쭈, -채, -투성이
2	다의어 2항목	사용 비율의 차이가 큼.	-불이, -짜리, -치레
3	다의어 3항목 이상	사용 비율의 차이가 큼.	-지기13, -지기14
4	다의어 2항목	사용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음.	-거리9, -거리10, -네, -보23, -보24, -씨8, -씨9, -잡이, -째1, -째2, -통이
5	다의어 3항목 이상	사용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음.	-기, -배기, -이29, -이30, -이33, -집4, -집5

위의 <표 6>이 접사의 다의성에 기반한 의미 예측성의 단계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의미 예측성의 단계가 높다고 하여 반드시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등으로 교육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접사 분류의 기준 중

기준에 연구된 빈도, 생산성 등과 이 논의의 의미 예측성, 추후 논의할 규칙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접사를 분류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단어족 단위로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서 접사의 분류 기준 중 하나인 의미 예측성을 논의했다. 예측의 대상이 되는 접사의 의미는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라는 횡적 관점과 의미 분류이라는 종적 관점에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다의어의 의미 분류는 이 횡적 관점과 종적 관점이 씨실과 날실처럼 얹혀서 이루어지며 사전의 규모, 사전 편찬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접사의 사전 의미 기술은 어기, 접사, 파생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데 이를 분석하니 접사의 의미 분류는 어기의 범주와 의미 부류, 접사의 어휘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귀납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접사의 의미 예측성은 하나의 형태가 접사로서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고를 때 정확하게 선택할 가능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접사의 의미 예측성은 접사의 중의성을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의 양과 반비례한다. Bauer & Nation(1993)은 접사의 예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의어 수, 다의어의 사용 분포, 어기 범주와 접사 의미의 관계를 제시했으나 중의성을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면 접사와 같은 형태의 자립 형태소 존재 유무 및 의미 관련성도 접사의 예측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 어휘인 ‘집’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은 같은 형태의 접사 ‘-집’의 의미를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집’과 ‘-집’은 공식적으로는 동형어이지만 명사와 접사라는 범주를 고려하면 통시적으로 문법화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정곤(2008)에서 제시한 ‘파생접미화 과정(자립 명사 → 의존 명사 → 파생 접사)’이 이와 관련이 있다. 동형태 어휘와 접사의 문법적, 의미적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접사의 의미와 이에 대한 예측성을 검토하고 사전과 말뭉치 등 언어 자료를 분석하여 <표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말뭉치의 규모나 구성을 다르게 하거나 기준이 되는 사전을 달리 선택했을 때 조정이 될 수 있다. 또한 일차적인 목표인 접사의 등급 분류 과정에서 빈도, 생산성, 규칙성 등 다른 요소와의 조율을 거치게 된다. 고유어 명사 파생 접미사 외에 접사의 위치, 어종, 기능을 달리하는 접사 부류의 의미 예측성에 대한 논의를 향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구본관(1989), “단일 어기 가설과 국어 파생 규칙”, 『어학연구』 34-1, 153~174쪽.
- 구본관(1999), “파생접미사의 범위”, 『형태론』 1-1, 1~23쪽.
- 구본관(2002), “파생어 형성과 의미”, 『국어학』 39, 105~136쪽.
- 김창섭(1992), “파생 접사의 뜻풀이”, 『새국어생활』 2-1, 72~88쪽.
- 김창섭(1995), “국어 파생 접사와 파생어의 사전적 기술”, 『애산학보』 16, 165~201쪽.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김한샘(2011),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한 단어족 분석 연구”,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71~96쪽.
- 김한샘(2013ㄱ), “교육용 접사 선정을 위한 명사 파생 접미사 빈도 연구”, 『언어와 문화』 9-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1~44쪽.
- 김한샘(2013ㄴ),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한 접미사의 생산성 연구”, 『한국어 의미학』 40, 한국어 의미학회, 521~547쪽.
- 서상규(2014),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 빈도 사전』, 한국문화사.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송철의(1985),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의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93~211쪽.
- 송철의(2001),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파생접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시정곤(2008), “준자립어와 준접미어에 대하여”, 『한국중원언어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중원언어학회, 105~114쪽.
- 심혜령(2007) “학습사전에서의 접사 처리의 문제”, 『겨레어문학』, 38, 겨레어문학회, 53-78.
- 이병규(2012), “국어 문법 교육의 원리 탐구”, 『새국어교육』 90, 한국국어교육학회, 2

9~56쪽.

이운영(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원.

이정식(2003), 『다의어 발생론』, 역락.

이현희(2009), “한국어 명사형성 접미사 ‘-이’의 다의성”, 『언어연구』 24-4, 경희대 언어연구소, 795~816쪽.

하치근(1989), “국어 파생접미사의 통합 양상에 관한 연구”, 『한글』 204, 한글학회, 5~38쪽.

하치근(1992), “파생법에서 어휘화한 단어의 처리 문제”, 『우리말 연구』 2, 국어교육학회, 33~57쪽.

홍중선 · 김양진(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접사 선정의 기준”, 『한국어학』 54, 한국어학회, 325~359쪽.

Aronoff(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m*, The MIT Press.

Bauer, L. & Nation, I. S. P.(1993), Word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6.

Nation, I. S. 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ation, I. S. P. (2004), *A study of the most frequent word families in the British National Corpus. Vocabulary in a second language: Selection, acquisition, and testing*. John Benjamins.

Scalise, S. (1984) *Generative Morphology*, Foris Publications.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27

국립국어원

157-857

전화 번호: 02-2669-9712

전자 우편: hansaem@gmail.com

원고 접수일: 2014년 05월 09일

원고 수정일: 2014년 06월 15일

게재 확정일: 2014년 06월 23일